

한라시론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두 소년공의 만남

지난달 말, 브라질의 톨라 대통령이 국민 방한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톨라 대통령이 공유하는 고난과 희망의 서사를 되짚어 보게 한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공장 기계에 잘린 새끼손가락과 으스스한 손목 관절, 그리고 그들이 극복해 낸 사법적 핏박이 그것이다.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은 시공간을 달리했을 뿐 마치 한 사람의 삶을 투영하는 듯한 평행이론을 보여준다. 이들의 삶은 '결핍'에서 출발했다. 톨라는 구두닦이와 신문팔이를 전전하다 14세에 선반공이 됐고,

그때 잃은 새끼손가락은 그의 노동운동과 정치 인생의 상징이 됐다. 소년 이재명 역시 성남 상대원공단에서 프레스 사고를 당해 왼쪽 팔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두 소년은 정규 교육 대신 기쁨때 묻은 현장에서 세상을 배웠고, 사회의 불평등을 은뎠다. 이러한 배경은 두 사람이 집권 후 '실용적 복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 최우선 가치로 삼는 근간이 됐다.

정치적 성장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밑바닥 소년공 출신의 등장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왔다. 브라질 사법부는 증거도 없이 '억지 혐의'를 씌워 그를 부패 정치인으로 몰아세웠으나, 훗날 대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며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방위적인 수사와 보수 언론의 공세 속에서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역설적으로 사법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력이 됐다.

두 정상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극우 이념을 앞세운 종교 세력과 갈등이다. 브라질의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은 톨라를 '사회주의자'로 낙인찍고 기득권 사법 세력과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한국의 극우 개신교회들은 이재명에게 좌익 프레임 씌우며 정치적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일부 종교 세력은 보수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반(反)이재명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톨라 대통령은 정계로 복귀한 뒤 복수하기보다, 경제 회복과 기아 탈출이라는 실용적 해법을 선택해 국

민적 신뢰를 회복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수많은 사법적 장애물을 넘어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두 사람이 지향하는 실용이란 '좌우'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빈부 차이라는 '상하' 격차를 줄이는 민생정책을 펴는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다. 트럼프의 신제국주의 질서가 강요되고, 미증유의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브라질의 방대한 자원과 시장을 결합해, 불확실한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양국이 서로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겠다는 약속의 자리였다. 그 결실로 양국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격랑의 시기에 두 '소년공'이 머리를 맞댄 모습은, 그 자체로 이 시대가 갈구하는 희망이자 위안이 되고 있다.

열린마당

국민이 이해하는 행정, 공공언어에서 시작된다



심소연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

한 언어가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낯설고 어려운 외국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쉬운 우리말을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면 된다.

문장의 구조 또한 중요하다. "납부 방법은... 납부할 수 있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으면 문장은 어색해진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또는 "요금은 납부할 수 있다"처럼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언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존중이며,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다. 쉬운 말 한마디, 정확한 조사 하나가 국민과 행정을 더 가깝게 만든다.

국민이 이해하는 행정은, 바른 공공언어에서 시작된다.

행정엔 국민을 향해 있다.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행정 현장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데스트 베드', '옴부즈퍼슨'과 같은 외국어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시간 소통 판매', '시험장', '민원 도우미'처럼 풀어 쓰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공공언어는 일부 전문가만을 위

뉴스-in

"단순한 수치 조정 넘어 양당 독점 깨야"

진보당, 비례대표 확대 촉구

제주시, 외국 인력 여가 지원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도의원 정수 유지와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보당 제주도당은 4일 "낡은 정치를 깨는 진짜 정치개혁, 제주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성명을 발표.

진보당 도당은 "참정권 후퇴를 막고 의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도민의 다양한 민심을 담아내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타파하고 '민심 그대로'의 의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라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 30% 확대 등 4대 개혁안 반영을 촉구.

진선희기자

○...제주시가 최근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해당 사업을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4개소로 확대,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 김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

해수부는 "나머지 2개소는 오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사설

장기 방치 차량 전수조사 후 신속 처리해야

공영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방치된 차량은 외관이 온전치 않고 차량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제주 시내 장기 방치 차량은 총 171대다. 이중 116대가 자진 처리됐고, 46대가 폐차됐다. 9대는 자진 처리 또는 폐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제주 시내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노상주차장에서만 무려 13대의 장기 방치 차량이 발견됐다. '장기 방치 차량 주차장'이라는 닉네임이 어울릴 정도다. 방치 차량들은 흉물 그 자체다. 타이어가 펑크 나고 차량 번호판이 제거

되는 등 외부가 흠먼지로 뒤덮여 있어 온전한 차량으로 볼 수 없다. 차량 내부는 쓰레기로 뒤덮여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치된 차량 주변 공간에는 무단 투기 쓰레기들이 쌓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 방치 차량은 비단 주차장뿐만 아니라 제주 시내 이면도로, 농어촌지역 길가 등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장기 방치 차량은 일종의 도심 속 공해다.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독이나 부족한 주차 여력을 저해하게 된다. 조영시설이 잘돼 있지 않은 주차장의 경우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당국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벌인 후 견인·폐차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보호종 훼손 없도록 방제 방식 개선을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제주고사리삼은 원시 고사리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서식처가 제주도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고유종의 유일한 종이다. 이런 사실이 퍼지면서 지리 잡고 사는 곳을 탐방하거나 무분별한 채취 등이 잇따랐고 대규모 개발로 인한 서식처 소멸 우려도 나왔다. 2022년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 생물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됐다.

이처럼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중에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1000여 개체가 집단 서식하는 대였다. 제주 환경 단체인 사단법인 꽃자왈사람들은 제주시가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제13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지역에서 중장비 투입으로 제주고사리삼과 함께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인 새우난초 서식

지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 당국에 방제 대상지 내 제주고사리삼 서식 현황 자료까지 제공했는데 이 같은 일이 생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면서 제주고사리삼 생육 환경을 해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5년 전에도 꽃자왈사람들은 방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40곳 이상의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망가진 걸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주문한 적이 있다.

꽃자왈사람들은 2013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시행해 온 제주도에 방제 방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해 왔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방제 사업이 소나무림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목표 실현 이전에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들이 생명을 이어갈 기반을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작명☆택일☆ 사주☆운세 상담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 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 철학원 창업반(통변중심)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